

#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일정\*\* · 이채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요인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된 180부의 설문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으나 거주기간, 종교유무, 가구월평균소득이 유의미하게 있었다. 반면 학력, 한국어 수준, 직업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

**주제어** 중국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9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교수

## I. 서론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이현승, 2013). 2019년 12월 말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에 따르면, 중국(562,402명, 44.2%), 베트남(187,334명, 14.7%), 필리핀(45,354명, 3.6%), 일본(24,316명, 1.9%)등으로 나타난다(법무부, 2020). 그런데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신 이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시대를 맞아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에게 중국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 의사소통 장애(김정옥, 2018), 생활습관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에 갈등(김금희, 2016),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이창운, 2017), 경제적 어려움(이혜림, 2018; 김순연, 2013)등의 요소들은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이민자, 2019). 따라서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작은 표본에 기반한 질적 연구에 국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방법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방미라, 2015; 유승희, 201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권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저하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백미숙, 2010).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감(박현선, 2014), 결혼만족도(천영희, 2019), 가족관계(염희정, 2020)의 변인으로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과정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은 원문화를 떠나 다른 문화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적응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경험한다(청영희, 2019).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대한 국내 연구의 수가 많지 않지만(최인수, 2009; 송경신,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은미·정선진·이수진, 2010; 김현실, 2012). 자아존중감에 따

라 그들의 자신에 대한 정체감 형성과 자기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여성결혼 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한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남편, 시부모, 한국인 친구, 중국인 친구, 원가족, 친척 등 의미 있는 타인들로 구성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명, 2013; 김정식, 2015).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랑·보호·수용 등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송경신, 2010).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타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의 유무 그리고 지지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참여 실태조사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도가 매우 저조하고,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배경희, 2013). 언어의 어려움, 가족 반대, 한국친구 좋아하지 않음 등 제한된 사회 활동참여 요소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희·정진경, 2007). 이에 한국의 중국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사회 내에서의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향후 어떤 정책적 심리지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여성결혼이민자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기 위해 2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

1992년 한·중 수교 및 2003년 7월 한국과 중국 간의 양해각서 폐지로 인해, 한중교류가 많아지고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황해영·김영순, 2018; 가령운, 2014). 한편, 한국의 산업화로 한국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로 인해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농촌남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언어, 문화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중국 여성들은 그들에게 좋은 배우자로 간주되었다(김기홍, 2011; 양순미,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중국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가족의 경제상황 및 생활수준 개선하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및 드라마가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유학열도 전개하였다(홍원식, 2009).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과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고, 같은 역사적인 유교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유학할 때 다른 나라의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수준이 아시아권에서 선두에 있으며, 학비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며, 우수한 장학제도와 더불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중·상층의 중국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국 유학생의 경우 68537명에 달했으며 전체 유학생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학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고학력 이주 여성과 한국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도 점점 많아졌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남녀가 평등한 사회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문화를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다일민족이고 유교의 가부장적인 시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회와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점을 크게 갖고 있다(김영희, 2003).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한 특수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문화가 있다(최금혜, 2006). 이에 따라 가족을 대하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치와 인식은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와 가정에서 남녀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최금혜, 2006). 한국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에 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 가운데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문화배경상의 특성은

다른 국가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에 따른 부부관계와는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LI JINYAN, 2013).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이민자들이 이주 국가와의 접촉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말하다(김은재, 2011). 즉,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문화의 가치, 규칙과 규범 등이 새로운 이주국가의 문화와 접할 때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부정적 변화나 문화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다 (Berry, 2007).

이는 자신의 출신국가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정착하며 겪는 부적응, 언어 능력 부족, 사회적 자원의 부족, 저임금과 관련된 스트레스, 주류사회의 냉대와 질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른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 등을 포함한다(나임순, 2008; 김은재, 2011).

2005년 이후 국내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김맹선, 2014).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예전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나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이은희 · 추연식, 2012). 또한 이로 인해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한국문화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여성보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만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이 우울, 불안, 정체성 혼란 등 정신건강의 심리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승희 · 김옥진, 2018).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라 언어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교육문제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한국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정성적,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은진 · 최지영 · 김교현 · 권선중 · 박은진 · 이민규, 2012).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로 정의되

며, 나머지 감정이 종속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주도적 특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Mcdougall, 1932).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개념, 긍정적 자아평가, 자아지각, 자아 가치감, 자아 인정감, 자아수용 등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송경신, 2010).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정의, 자아존중감은“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송경신, 2010).

권복순(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경신(2010)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인지감과 자신감, 애정 등이 주요한 요인임을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갖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어떤 관련성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사회적 지지

사람들은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 지지망, 지지체계와 관련된 용어로 쓰이며, 개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과 지원으로 정의를 내려졌다.

사회적 지지를 지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의 기본적 사회 요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얻는 실제적인 자금 지원, 물질 지원, 그리고 인식 체계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지원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Kaplan, 1974). Cohen과 Hoberman(198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지지, 일상생활에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

는 정보적 지지, 도구나 재원을 제공해 주는 도구적, 기술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아존중감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Shaefer, Coyne과 Lazarus(1981)는 유형적 지지(tangible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의 3가지 유형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기도 했다(홍미기, 2008).

전미영 외(2019)의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순현(2020)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모국 친구, 한국 친구,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전문가, 사회단체 등)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물질적 도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 스트레스의 어떤 관계를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 5. 사회활동 참여

일반적으로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사회활동(social activity), 사회운동(social movement) 등의 용어와 일정한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서정원, 2018).

사회참여란 공동체의 질적 발전과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어떤 일이나 활동의 일부분을 맡겨 수행하는 조직적인 의사반영과정이다(최현섭, 2000).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배경희, 2013; Palmore, 1981).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인간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와 “생산적 활동”을 지속해 간다(Rowe and Kah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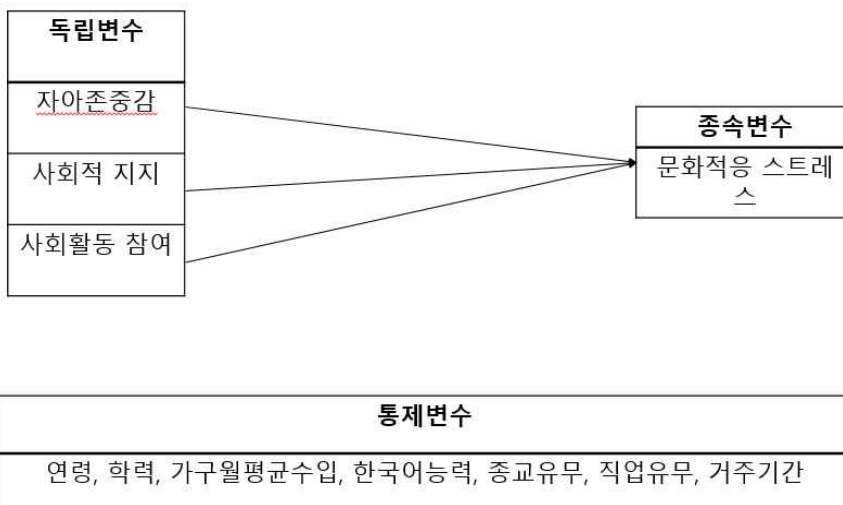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서 한 가족구조 안에 어머니, 며느리, 배우자라는 신분적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정원, 2018). 양순미(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에 따른 지역 사회활동이 적극적인 참여할수록 한국에서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춘양(2020)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사회 참여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문제를 관계라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들의 직접적인 사회참여경험을 통해 자기 스스로 강점을 찾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감으로써 각자가 우리 사회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행위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송지현·이태영, 2014).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한 중국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국여성결혼이민자란 중국에서 출신하여 교육받고 생활하다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여성을 의미한다.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 대상인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서울권 지역으로 중심으로 중국인 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중국동포지원센터의 실무자를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국여성결혼이민자 커뮤니티<sup>1)</sup>에 연구조사에 대한 공지를 올리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보여 작성하게 하였다. 이외에 중국어 어학원 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눈덩이 표집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5~10년 살고 있는 30대 중국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배포된 설문지는 총 215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로 이주한 이후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di(1994)가 설계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홍미기(2009)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홍미기(200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하위영역을 제외하고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향수병, 기타 등 4개의 하위요인의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이 Likert척도 5점 평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총점의 범위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 사의의 점수 분포

1) 분투재한국(奮闘在韓國)이라는 사이트는 2006년 8월 1일 재한 중국인들의 오락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생활 편의를 돕고자 출범하였습니다. 2012년 방문조사에 따라 80만 명의 회원 인수를 보유하고 사이트의 일일방문량 5만회 이상, 사이트 내에 게시물 조회수 총 60 만 번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과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한중 교류 최대 포털 사이트이다.

하게 된다. 홍미기(2009)의 연구에 대한 척도 신뢰도 값은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08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설계했던 자아존중감척도를 Jeon(1974)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사회복지척도집, 2007). 이 척도는 자기수용 측면을 측정하는 5문항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5문항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문항의 내용은 1)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2)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함 3)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음 4)나는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함 5)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포함하였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문항 내용은 1)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함 2)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음 3)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듦 4)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음 5)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함을 포함하였다. 이 척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집단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들도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Rosenberg (196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1였다.

###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홍미기(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직접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6개 하위요인으로 남편의 지지(4문항), 시부모의 지지(4문항), 중국인 친구의 지지(4문항), 한국인 친구의 지지(4문항), 원가족의 지지(4문항),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4문항)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응답은 하는 Likert척도 5점 평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최저 24점에서부터 최고 120점까지 사이의 점수 분포를 가진다. 홍미기(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3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925로 나타났다.

### (3) 사회활동 참여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2015년 경기교육복지패널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참여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녀 학부모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등 사적모임’, ‘지역 주민 모임’, ‘종교 활동’, ‘직장관련 모임’, ‘각종 여가문화 모임(스포츠, 취미관련 동호회)’,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활동(통역, 상담 등)’, ‘다문화관련 모임(다문화가정모임, 자조모임 등)’, ‘기타(정당활동)’로 이루어진 총 9개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작성하였다. 활동참여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를 예=1, 아니오=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많음을 의미한다.

### 3) 통제변수

중국결혼이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생활기간 등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수령된 설문지의 검토를 통해 무응답이 많거나 무성의하다고 판단된 35부의 설문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8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통계 처리는 데이터 코딩,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2.0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있어 모든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T-test 및 ANOVA 분산분석, Scheffe-test,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이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주로 35.2세이었으며, 평균 한국거주기간 9년2개월이 (36.7%)고,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5~10

년 미만(47.2%)인 중국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었으며 종교 없고, 직업 있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주로 차지하였다. 가구월 평균소득(가계 총합)은 주로 300~400만원 미만이고, 가족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보통 이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SD)
연령	30세 미만	37	20.6	35.2세/6.4세
	30대	108	60.0	
	40세 이상	35	19.4	
한국거주 기간	5년 미만	32	17.8	9년2개월/ 4년11개월
	5~10년 미만	66	36.7	
	10~15년 미만	57	31.7	
	15년 이상	25	13.9	
결혼생활 기간	5년 미만	55	30.6	6년8개월/ 4년7개월
	5~10년 미만	85	47.2	
	10년 이상	40	22.2	
학력	중졸이하	10	5.6	
	고졸	20	11.1	
	전문대졸	10	5.6	
	초대졸	125	69.4	
	대학원이상	15	8.3	
종교유무	있다	65	36.1	
	없다	115	63.9	
직업유무	있다	135	75.0	
	없다	45	25.0	
가구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0	5.5	
	100~200만원 미만	5	2.8	
	200~300만원 미만	40	22.2	
	300~400만원 미만	50	27.8	
	400~500만원 미만	30	16.7	
	500~600만원 미만	30	16.7	
	600만원 이상	15	8.3	
소계		180	100.0	

한편, 연구에 참여한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6로 연구에 참여한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인의 한국어 능력을 보통 이상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교류 및 대화가 큰 문제 없고 추측할 수 있다.

〈표 4-1〉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Range(1~5점)
한국어 수준	말하기	3.9	0.8	3~5
	듣기	3.9	0.9	2~5
	읽기	3.6	1.2	1~5
	쓰기	3.1	1.3	1~5
총점		3.6	1.0	2~5

## 2.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 1) 자아존중감

연구에 참여한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자아존중감에서는 평균이 2.68점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2.63점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평균 2.45점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표 4-2〉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자아존중감	2.63	0.25
부정적 자아존중감	2.45	0.27
자아존중감	2.68	0.61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서는 남편 지지가 평균이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본가 지지가 3.67점, 중국친구 지지가 3.35점, 타인 지지가 3.37점, 시부모 지지가 3.25점, 한국친구 지지가 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있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

들은 주로 남편 쪽에 지지를 얻게 되었다.

〈표 4-3〉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한국친구 지지	3.13	0.92
중국친구지지	3.35	0.68
남편 지지	3.72	0.90
본가 지지	3.67	0.75
시부모 지지	3.25	1.08
타인 지지	3.37	0.83

### 3)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참여에서는 지역주민 모임(63.9%)에 참여한 조사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모국인 친구, 친목회 등 사적 모임(52.8%),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활동, 학부모 모임 및 자녀 학교 모임과 다문화관련 모임, 종교 활동, 직장관련모임(혹은 노동조합), 각종 여가문화 모임(27.8%), 기타모임(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참여 빈도

구분	빈도(명)	비율(%)
한부모 모임, 자녀 학교 모임	70	38.9%
모국인 친구, 친목회 등	95	52.8%
지역주민 모임	115	63.9%
종교 활동	65	36.1%
직장관련모임(노동조합)	55	30.6%
각종 여가문화 모임	50	27.8%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활동	80	44.4%
다문화관련 모임	70	38.9%
기타모임	25	13.0%

###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향수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가 2.29점, 지각된 차별감이 2.24점, 지각된 적대감이 2.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여성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에 생활하면서 외로움, 부적응 등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 조직의 심리적인 상담과 지원을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4-5〉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차별감	2.24	0.87
향수병	2.64	0.89
지각된 적대감	2.11	0.82
기타	2.29	0.84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관련성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4-6〉과 같다. 독립변인인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시간(-.179\*), 결혼생활기간(-.168\*), 한국어 수준(-.196\*\*)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력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시간 및 생활기간이 오를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	-.129
한국거주기간	-.179*
결혼생활기간	-.168*
학력	-.001
한국어 수준	-.196**

\*p<.05,\*\*p<.01

또한, 조사대상자로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직업유무				
직업 있음	135	2.18	0.46	-3.103**
직업 없음	45	2.43	0.43	
종교유무				
종교 있음	65	2.39	0.74	0.865
종교 없음	115	2.28	0.78	

\*p≤.05,\*\*p≤.01

검증결과 우선,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03^{**}$ ). 즉, 직업이 없는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4-8〉를 제시하였다. 연령, 거주기간, 결혼기간 간의 상관관계가 .6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주기간을 남겨두고 연령과 결혼기간은 투입하지 않았다.

또, 본 연구에 활용되는 주요 구성개념들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을 높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8〉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연령	거주기간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가구월평균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	문화적응스트레스
연령	1	.690**	.647**	.178*	-.227**	-.068	.016	.007	-.017	-.404**	.060	-.129
거주기간		1	.734**	.301**	.116	.337**	.156 <sup>†</sup>	.112	.038	-.141	.132	-.179 <sup>†</sup>
결혼기간			1	.090	-.047	.153*	.260**	.164 <sup>†</sup>	.058	-.252**	.400**	-.168 <sup>†</sup>
학력				1	.000	.077	-.008	-.012	.022	.206**	-.105	-.001
한국어수준					1	.383**	-.028	.258**	.143	.530**	.128	-.196**
직업유무						1	.033	.209**	.145	.100	.290**	-.145
종교유무							1	-.033	.088	-.033	.504**	.065
가구월평균소득								1	.059	.028	.102	-.303**
자아존중감									1	.092	.237**	-.334**
사회적 지지										1	-.050	-.181 <sup>†</sup>
사회활동참여											1	-.213**
문화적응스트레스												1

직업유무 0=없다, 종교유무 0=없다

\*p<.05, \*\*P<.01

## 5.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활동참여를 중심으로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4-9>에 제시하였다.

<표 4-9>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모델1				모델2			
	B	$\beta$	t	VIF	B	$\beta$	t	VIF
거주기간	-.002	-.182*	-2.343	1.179	-.004	-.275**	-3.638	1.311
결혼기간	.014	.019	.252	1.067	.039	.050	.694	1.222
한국어수준	-.067	-.084	-1.018	1.318	.100	.125	1.371	1.938
직업유무	-.019	-.011	-.133	1.328	.124	.073	.938	1.423
종교유무	.103	.066	.914	1.028	.361	.232**	3.043	1.359
가구월평균 소득	-.132	-.256***	-3.430	1.091	-.134	-.262***	-3.809	1.104
자아존중감					-.249	-.200**	-2.920	1.104
사회적지지					-.323	-.278***	-3.280	1.682
사회활동참여					-.108	-.297***	-3.560	1.630
F	4.565***				7.704***			
R <sup>2</sup> Change	15.6***							
R <sup>2</sup> (Adj, R <sup>2</sup> )	14.0(10.9)				29.6(25.7)			

직업유무 0=없다, 종교유무 0=없다

\*p<.05,\*\*p<.01

인구사회학적 변수(한국거주기간, 결혼기간, 한국어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가구월평균소득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한 1모델 회귀모형은 14.0%(수정된 설명력 = 10.9%)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565\*\*\*, p<.001). 이때, 한국거주기간과 가구월평균소득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2모델에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가 투입된 모델2에서는 모

형의 설명력이 15.6% 증가하여 설명력이 29.6%(수정된 설명력=25.7%)이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7.704^{***}$ ,  $p<.001$ ). 모델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 거주기간, 종교유무, 가구월평균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월평균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사회활동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거주기간, 가구월평균소득, 종교유무,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변인, 사회적 지지 변인 및 사회참여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결혼생활기간 및 한국어수준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생활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를(김정아·김인경, 2011; 권명희, 2010; 신혜정·노충래·해성희·김정화, 2015)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중국여성결혼의 나이, 거주기간, 생활기간, 한국어수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요변인 중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기여하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수록 자기 가치를 인정함과 결혼만족도 및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볼 때, 자아존중감의 높을수록 결혼생활이나 가족생활을 한국에서의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최정혜, 2011).

셋째, 주요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

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손연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같은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화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국여성결혼이민자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넷째,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참여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할수록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아름(2012)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활동 참여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며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가 학부모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주임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만 투입했을 때에는 거주기간과 가구월평균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고 가구월평균소득,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종교유무 변인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만 투입한 1 단계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의 독립변수가 추가 투입된 2 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김현실, 2012)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참여에서 종교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활동참여도 활발하고 이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반대 결과를 나타났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무신론에 기반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이주 여성들은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한국 생활과 한국문화를 잘 적응했고 신앙심도 생기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종교단체에서 과도한 활동 요구 또는 지나친 관심 때문에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신념을 침해받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종교 활동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것이 추측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유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인터넷으로 수집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30대 중국여성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연령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참여를 참여여부만으로 살펴본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여부 이외에도 사회활동참여의 빈도나 만족도 등 다양한 사회참여측면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의 지점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가령운(2014). 중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금희(2016).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홍(20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 21(2), 49-102.
- 김순연(2013).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적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재(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와 충남(천안·아산)지역거주.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김인경(2011). 중국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6-61.
- 김정옥(2018).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정착의지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실(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나임순(2008).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6.
- 남순현(2020). 이주여성의 가족지지가 행복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23-39.
- 방미라(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여가인식이 생활만족과 국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경희(2013a).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9), 33-54.
- \_\_\_\_\_(2013b).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9), 33-54.
- 법무부(2020).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2019년 12월.
- 서정원(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경신(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현·이태영(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241-266.

- 신혜정 · 노충래 · 해성희 · 김정화(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변인 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 양순미(2010a).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사회, 16(4), 713-742.
- \_\_\_\_\_ (2010b).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학회, 20(1), 233-263.
- 유승희(2018).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승 · 김갑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4), 123-143.
- 이민자(2019).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 추연식(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4), 1619-1624.
- 이창운(2017).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중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춘양(2020).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9-46.
- 이현승(2013).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201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경제적 참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 복지학회지, 34, 189-221.
- 전미영 · 채영란 · 강소연 · 이희영 · 김명미 · 박성희 · 최현희(2019).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건강문해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여성건강지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6(2), 273-282.
- 지은진 · 최지영 · 김교현 · 권선중 · 박은진 · 이민규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43-252.
- 천영희(2019).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금혜(2006). 한국남성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29-46.
- 한아름(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미기(2008).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원식(2009). 21세기 중국과 '유학열'. 中國學報, 60, 2009.
- 황해영·김영순(2018).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치료 방안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695-704.
- Berry, J. W. (2007).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adaptation. *Immigrant Families in Contemporary Society*, 69-82.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Jeon, B. J.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 ability. *J. Yonsei*, 11(1),107-130.
- Mcdougall, W. (1932). The Words Character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1(1), 3-16.
- Palmore, E. (1981). *Social Pattern of Moral Aging; Finding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 North California: Duke Unvi. Press.
- Rosenberg, M. (1965).The self-esteem scale.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1, 320-325.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The MacArthur Foundation Study shows you how the lifestyle choices you make now-more than heredity-determine your health*. Random House Large Print.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d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ABSTRACT〉

## Factors Affecting Chinese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Li, Yicheng · Rhee, Chaie Won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nd current status of cultural acculturation stress for Chinese marriage immigrants to adapt to life in Korea, and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conducting offline and online survey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using snowball sampling, and finally, the collected data of 18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Chines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lturation stress. In order to examine in detail, i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in the sub-area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but the length of residence, religion, an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academic background, Korean language level, and job status were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hopes to help alleviate the stress of adaptation to Chinese marriage immigrants and lead a healthy life as a member of society in Korean society.

### Key words

Chinese Marriage Immigrant,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논문 투고일	2020. 12. 19
논문 심사일	2021. 01. 09
게재 확정일	2021. 01. 22

---

**이일정**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21호  
helenlee1992@naver.com

**이채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진리관 701호  
chaie-won@hanmail.net